

# 춘향 · 박문수가 판타지 속으로 '신(新)암행어사'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 '신암행어사'가 11월 26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개봉됐다. 윤인완·양경일의 원작 만화로 일본에서 150만부, 한국에서 50만부쯤 판매되는 등 이미 대중성을 검증받은 '신암행어사'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것. 한·일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이 판타지·액션·드라마가 결합된 대서사극으로 재구성해 스크린으로 부활시킨 '신암행어사'를 들여다본다.

글 / 신선자 객원기자

“평화와 번영을 꿈꾸던 나라 주신이 패망했다. 나에겐 나라를 되찾고 싶은 열망이 없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도 없다. 난세에 이름을 남기려는 영웅심도 없다. 남은 거라곤 패망한 조국이 내게 준 마패와 이상향을 꿈꿨던 어리석은 옛 친구와의 약속뿐... 그대들은 희망을 기다리는가? 약자라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 도둑만 바라는 그대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똑똑히 들어라! 사악한 자들에게 단죄는 필연이지만 나약한 자들에게 구원은 우연이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그대들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암행어사, 출두야!”

## 암행어사, 출두야!

'신암행어사'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레이션이다. 일국의 왕의 특사로 품위를 지키며 불의에 맞서야 하는 암행어사가 '신(新)'자를 앞에 붙이더니 어딘가 이상

해졌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건 모두 우연이야. 앞으로 기적 따윈 바라지마”라고 외친다.

신암행어사에선 혼돈의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언제나 악의 세력이다. 요술을 부리는 마녀 영주와 수많은 원귀가 만들어낸 요괴, 인간을 먹이로 하고 있는 괴물, 인간을 현혹시키는 강력한 마법사들이 활약한다. 이들에 대항하는 주인공은 마패 하나로 최첨단 정예부대 팬텀솔저를 부리는 문수와 거대한 첩퇴손과 몸길지만한 칼을 지닌 괴력의 전사 춘향이다.

현실과 역사의 세계보다 훨씬 드라마틱하고 어두운 판타지의 세계에서 문수는 심판자가 아니라 처단자다. 그에게 세상은 구원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며, 그는 악의 세력에 무릎 꿇은 백성들을 힘의 논리에서 진 나약한 패배자로 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사에 사리분별 빠르고 공정하며 무조건 약자의 편에 서는 영웅은 죽고 혼돈의 세상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영웅이 탄생한 것이다.

패망한 가상국가 주신(聚愼)의 마지막 암행어사 박문수가 악의 무리를 처단한다는 줄거리의 한일합작 애니메이션 신암행어사(감독 시무라 조지)는 한국에서 50만부, 일본에서 150만부가 팔리는 등 200만 신화의 베스트셀러로 대중성을 검증받은 작품이다.

## 우리만화의 최초 한일 합작품

한일 합작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던 신암행어사. 이 작품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종주국이라고도 하는 일본에서 우리 만화가 인정받아 한일공동 제작으로 일본인 감독의 총지휘 아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눈길을 모은다. 혹자는 “올드보이가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국인의 영화적 테크닉이 결합된 웰메이드 무비였다면 애니메이션 신암행어사는 이와 반대로 한국의 만화를 원작으로 일본의 테크닉이 결합된



한·일 애니메이션 역량의 집결체”라고 강조했다.

과연 어떤 영화이기에 열광하는가? 영화는 주신이라는 나라에 각 지방을 돌면서 부패한 관리를 찾아내 엄벌했던 암행어사가 있었다며 주신이 패망한 지금 아직도 한 명의 암행어사가 세상을 떠돌고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한다.

단 한 명의 암행어사는 총 한 자루를 들고 세상을 떠도는 청년 문수. 문수는 사막을 걸어가다가 몽룡이라는 이름의 선비를 만난다. 몽룡은 고향의 영주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춘향을 빼앗자 암행어사가 돼 그녀를 되찾으려고 하지만 과거시험에 계속 낙방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 매머드 판타지 액션에 드라마까지

문수는 암행어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마패는 마법의 램프가 아니라고 몽룡을 꾸짖는다. 그 순간 사막의 식인귀인 슬린저의 창이 몽룡의 가슴을 뚫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문수는 몽룡의 고향을 찾아가고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며 영주를 물리치려 한다. 그러던 중 영주의 최면에 걸려 살인 기계가 된 춘향과 싸우게 된다. 그러나 춘향은 문수가 하고 있던 몽룡의 머리피를 발견하고 최면이 풀린다. 이후 춘향은 문수의 경호원인 ‘산도’가 된다.

둘은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소년이 살려달라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그 소년이 사는 섬으로 간다. 그 곳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명의 유의태를 만나고 문수는 그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문수는 유의태가 사람모양을 한 약초만 다라게를 재배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가 전염병으로 죽은 섬사람들을 살려내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 악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문수는 춘향과 함께 유의태를 물리친다.

이 영화는 익숙한 미국·일본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볼거리를 준다. 시종 일관 힘

있고 강렬한 그림으로 독자들을 사로잡는다면, 배경을 수목화로 처리해 주인공들의 정서를 전달해 동양적이면서 독특한 느낌을 준다. 연필 스케치와 펜 그림이라는 2D의 수공업적 작업방식으로 그려진 화면에는 정성과 열정이 녹아들어 있다.

#### 현실적인 영웅이 온다

특히 박문수가 왕에게 받은 ‘궁극의 3마패’로 주신의 정예특수부대인 ‘팬텀 솔저(영혼병사)’들을 불러모아 전투를 벌이는 장면은 압권이다. 또 산도가 된 춘향이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칼을 휘두르는 액션 장면 역시 화려함의 극치를 달린다.

고정관념을 깨는 재미도 있다. 박문수·춘향·몽룡·유의태 등 한국고전 문학·역사 속 인물들이 마법·요괴·괴물이라는 판타지의 세계 속을 한껏 누빈다. 그 등장인물들은 이름만 빌려받았을 뿐 전혀 다른 캐릭터로 창조돼 극중에서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벼운 미소가 저절로



나오게 한다. 원작자에 의하면 일본의 매니아들은 신암행어사를 잘 알기 위해 한국의 고전들을 읽기 시작했고 원작에 인용된 문수·춘향은 물론 원호·유의태 등 다양한 캐릭터들의 원전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할 정도다.

악당을 깔끔하게 물리치고 아름답게 사라지는 전형적인 영웅이 아닌, 구원만을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적을 바라지말라'고 매섭게 꾸짖는 현실적인 영웅으로 암행어사를 재구성해 그것기에 더욱 새롭게 느껴진다.

**고정관념 깨는 캐릭터, 남다른 재미**

춘향은 색동저고리 대신 가죽 띠를 두른 살인병기로, 몽룡은 유약하기 그지없는 청년으로 바꿨다. 명의 유의태는 침술로 사람들의 영혼을 농락하는 악마로 등장한다.

더욱이 이 애니메이션에는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도 등장한다. 바로 여검사 춘향의 적수인 남자 '마리'. 두 사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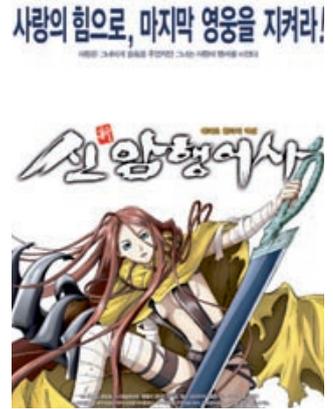
격투신은 윤인완·양경일 콤비가 열광하는 영화 '와호장룡', '천녀유혼' 등의 중국 무협을 참고로 시무라 감독이 각고의 정성을 기울여 제작했으며, 일본내 프로모션 시사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은 장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인공 박문수의 캐릭터가 매력적이다. 국적·시대 불명의 공간에서 그는 '선'의 절대 화신이 아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간교를 지녔다. "악당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머리가 발달했다. 그들을 치려면 뒤통수를 칠 수 있을 만큼 교활해져야 한다." 주인공 문수가 던진 대사다. 그는 내면에 갈등과 복선을 지닌 중층적 인물이다. 박문수와 동행하는 춘향의 파격적 의상과 활극도 볼 만하다. 몽룡 대신 박문수에 의해 악덕 영주로부터 구출된 춘향은 천부적인 전사로 변신해 박문수와 함께 환상의 복식조를 이룬다.

한편 목소리 연기는 성우 구자형(박문수)·배정미(춘향)씨 등이 열연했다. 그 목

소리 연기자들은 에너지 넘치는 한국식 연기보다는 목의 울림통을 건드리며 나오는 들뜨지 않는 소리를 냈다.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기대할 수 있는 신나고 과장된 연기가 아니다. 액션신들이 준비해 웅장할 듯하지만 꽤나 차분한 음색의 목소리가 들려와 어딘가 어색한 느낌도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성우들의 연기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지는 미지수다. 색다른 느낌이 있긴 하나 조금은 지루하고 애매모호한 느낌도 있어서다. 과장된 애니메이션의 목소리, 인간보다 더 인간같은 느낌의 3D 모션 캡처 기법 등에 익숙했던 관객들에게 2D의 평면적인 느낌의 이 애니메이션에는 동양의 신비처럼 신비롭게 느껴질 요소가 종종 들어 있다. 특히 '마음의 여행'을 키워드로 삼은 영화음악은 영화 전반을 압도하는 느낌이다. 뭔가 빨려들어가 버릴 듯한 전율이 일게 만든다. 일반 애니메이션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센스가 돋보인다. 어쨌든 이 영화는 여러 가



지 면에서 새롭다. 처음 시도되는 한일 합작품, 뭔가 뇌리가 꽂히는 성우들의 목소리, 고정관념을 깬 캐릭터, 화려한 활극의 액션 씬, 신비로우면서 평화로운 영화음악 등. 이런 캐릭터를 보는 남다른 재미와 화면들이 신암행어사에 조금은 열광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 영화는 관객의 긴장을 팽팽하게 당겨놓지 못한다. 원작은 현재 8권까지 연재돼 있는데 영화는 원작의 1, 2권에 해당하는 내용 중 주인공 문수와 여검사 산도인 춘향의 만남, 그리고 두 사람이 기적의 명의 유의태가 지배하는 수수께끼의 섬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만다라케' 에피소드를 메인 스토리로 선택했다. 제작사 측은 영화화하지 않은 원작의 다른 부분에서도 인상적인 에피소드들을 추려, 메인 스토리에 녹여냄으로써 원작과는 또 다른 새로운 스토리 라인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고 전했지만 원작 만화의 이야기 두개를 이어놓아 영화를 꿰뚫는 하

나의 이야기가 없어 극의 흐름을 감잡기 힘들다. 또 주인공 문수에 반대되는 악역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의 주제가 흐려지는 것도 이 영화의 약점이다.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며 신선함을 던져주긴 했지만 원작의 느낌을 스크린에 옮겨놓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가보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지도 모르나 아쉬움이 많은 영화다. 🇰🇷🇯🇵

#### 작품개요

- 작품명 : 신암행어사
- 원작 : 신암행어사
- 감독 : 시무라 조지(JOJI SHIMURA)
- 한국제작감독 : 안태근
- 원작자 : 윤인완 · 양경일
- 구성 및 감수 : 혼고 미쯔루(MITSURU HONGO)
- 제작 : 신암행어사 제작위원회 2004
- 한국 : 대원씨엔에이홀딩스, 캐릭터플랜, KTB네트워크, 삼성벤처투자
- 일본 : 소학관, 클락웍스, 소지츠, 하쿠호도 DY 미디어 파트너즈, OLM, 투 맥스, 반다이, TV TOKYO, 소학관 프로덕션
- 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 상영시간 : 86분
- 장르 : 35mm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 매머드급 판타지 액션
- 개봉일 : 2004년 11월 26일(한·일 동시 개봉)